최선일의 佛母列傳 시즌2 ⑳ 청윤(淸允) 스님



▶한줄 요약
청윤 스님은 혜희 스님의 계보를 잇는 인물로 추정되며, 약 32년간 경북 북부 지역 주요 사찰에서 불상 조성 및 중수·개금을 주도한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의 대표적인 조각승이다.

조선 후기 경북 조각승의 계보 이어 가

조각승 청윤(淸允) 스님은 17세기 후반 문경 양산사(陽山寺, 현재 봉암사)에 거주하면서 경북 지역 여러 사찰의 불상을 제작하거나 중수·개금한 대표적인 작가이다. 청윤 스님의 활동 시기는 1684년부터 1716년까지로 확인되며, 현재까지 조사된 수화승으로서의 제작 사례는 1건 3점에 불과하다.

청윤 스님은 1684년 음력 3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수화승으로 영주 부석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을 학정(學淨)·승보(勝宝)·묘성(妙性) 스님 등과 함께 제작했으며, 대좌(座臺)는 인해(印海) 스님이 조성했다. 이 불상과 함께 괘불도 역시 조성된 점에서 당시 불사가 상당히 큰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부석사 괘불도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그동안 괘불도 화기에 기록된 불상 제작 작가는 수화승 ○원(○元), ○정(○淨), 인해(印海), 승○(勝○), 묘성(妙性), 상○(尙○) 등으로 판독돼 왔으나, 1960년대에 촬영된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대좌 일부 사진에 묵서가 공개되면서 작가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 불상 삼존 가운데 본존인 아미타여래는 현재 영주 부석사에, 관음보살은 봉화 중대사에, 대세지보살은 강릉 백운사에 각각 봉안돼 있다.

청윤 스님은 1702년 6월에 문경 대승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중수할 당시, 발원문에 '화공(畫工) 통정대부(通政大夫) 청윤(淸允)'으로 기록돼 있다. 이는 정3품(正三品) 당상관(堂上官)에 해당하는 통정대부(通政大夫)의 공명첩(空名帖)을 받은 것으로, 국가적 사업에 참여했거나 국가에서 발급한 명예직 임명장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청윤 스님은 1706년 2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약 3개월간 수화승 금문 스님이 제작한 안성 칠장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등의 조성에 부화승으로 참여했다. 이때 금문 스님과 청윤 스님은 종2품(從二品) 문무관에 해당하는 가선대부(嘉善大夫)의 공명첩을 받은 사실도 확인된다. 이 불사를 통해 조각승 12명이 명부전에 봉안할 목조지장보살삼존상, 시왕상, 판관상 등 최소 21점 이상을 3개월에 걸쳐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청윤 스님은 1710년 문경 봉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을 단독으로 개금했으며, 1714년에는 김천 직지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의 개금·중수 불사에 수화승으로 참여했다. 이때 새선(璽旋)·희일(熙日)·태섬(太暹)·무선(武善) 스님 등과 함께 작업했고, 청윤 스님은 황금(黃金) 대시주자로도 참여했다. 또한



강릉 백운사 목조대세지보살좌상(1684년, 영주 부석사 조성)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영주 부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684년)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봉화 중대사 목조관음보살좌상(1684년, 영주 부석사 조성)
ⓒ불교문화유산연구소

혜희 스님의 조각승 계보로 추정
문경 봉암사 거주하면서 32년간 활동
금문 스님 후배, 새선·희일 스님 스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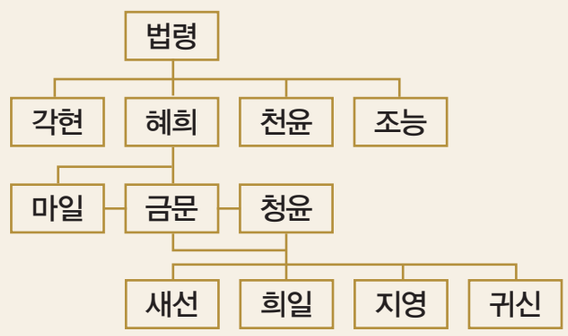
스님은 1716년에 경산 환성사 목조여래좌상(1466~1474년 조성, 경주 왕룡사원 봉안)을 새선(璽善)·희일·지영(智英)·귀신(歸信) 스님 등과 함께 중수했다.

여러 불상에서 발견된 조성·중수발원문을 종합하면, 청윤 스님은 문경 봉암사에 거주하며 1684년 음력 3월부터 1716년까지 약 32년간 활동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통해 1640년대에 태어나 1660~1670년대에 불상 제작의 수련기와 보조화승 과정을 거친 뒤, 1684년 영주 부석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제작을 주도했다. 이후 18세기 초반에는 문경 대승사, 문경 봉암사, 김천 직지사, 경산 환성사 등에서 금동불과 목조불의 중수·개금 불사를 주도했다. 청윤 스님은 1702년 정3품 문관에 해당하는 통정대부, 1706년 종2품에 해당하는 가선대부의 공명첩을 받은 인물로, 당대 조각승 가운데서도 비교적 높은 사회적 위상을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화승으로서 경북 영주, 문경, 김천 일대 사찰에 봉안된 불상의 중수·개금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다.



각각 다른 사찰로 이운된 영주 부석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1684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오가와 게이키치 조사 문화재 자료〉, 1994

청윤 스님의 조각승 계보 (필자 작성)



청윤 스님의 조각승 계보는 법령(1615~1641 활동)→각현(1624~1640)·혜희(1640~1677)·천윤(1629~1655)·조능(1640~1657)→마일(1655~1701)·금문(1655~1706)·청윤(1684~1716)→새선(1706~1716)·희일(1706~1716)·지영(1716)·귀신(1706) 스님 등으로 이어진다.

청윤 스님의 대표작인 영주 부석사 장경각 봉안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높이가 126.5㎝, 무릎 폭 81.5㎝에 이르는 중대형 불상이다. 상반신을 곧게 세우고 머리를 약간 앞으로 내민 자세를 취하고 있다. 머리에는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육계(肉髻)와 뾰족한 나발(螺髮)이 표현됐으며, 중앙에는 반원형의 중간계주(中間髻珠), 정수리에는 원통형의 정상계주(頂上髻珠)가 배치돼 있다. 방형의 얼굴에는 넓게 벌어진 눈 사이, 가늘게 뜨고 약간 올라간 눈꼬리, 평평한 콧등과 뾰족한 코, 얇은 윗입술과 미소를 머금은 입매, 넓은 인중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목에는 삼도(三道)가 가늘게 새겨져 있다.

착의는 대의(大衣) 안쪽에 부견의(覆肩衣)를 받쳐 입은 형식으로, 오른손을 들어 올린 자세로 인해 오른쪽 어깨의 대의 자락이 짧게 접히며, 나머지 자락은 팔꿈치와 복부를 지나 왼쪽 어깨로 이어지는 유려한 흐름이 보인다. 대의 내부에 착용한 승각기(僧脚崎)의 상단은 연판형 주름으로 처리돼 장식적 효과를 더한다. 복부에서 부견의가 대의 안쪽으로 접히며 W자형 주름 구조를 이루고, 하반신으로 내려온 대의는 중앙의 긴 주름을 중심으로 좌우에 4~6가닥의 세부 주름이 전개된다. 후면에서는 목둘레를 감싸는 대의 끝단과 왼쪽 어깨에서 넘어온 자락이 수직으로 늘어져 전체적인 착의 구성의 완결성을 높인다. 수인(手印)은 오른손을 가슴 높이까지 들어 올리고 왼손은 무릎 위에서 엄지와 중지를 맞댄 형태로, 조선 후기 여래상과 보살상에서 널리 채택된 전형적인 형식이다.

현재 청윤 스님이 제작한 불상은 몇 점만 확인되지만, 제천 무암사 극락보전에 봉안된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역시 1680년대 청윤 스님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끝〉

〈사〉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장 · csi34@hanmail.net〉

'재구매율 1위로 입증한 건강지킴이' 오행컬러패치 2025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 · 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하나사면 하나를 더 1+1

소비자가 ~~₩99,000~~ → 60%할인
₩39,600 총 80매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